

전남도, 소상공인 상생 금융 모델 구축

8개 금융기관·전남신보와 중·저신용 소상공인 우대 이자 지원 협약 전국 최초...1000억 금리 추가 인하, 500억 저금리 안심전환대출

전남도가 8개 금융회사, 전남신보와 함께 전남 소상공인 육성자금 1000억원에 대해 금리를 추가 인하하고, 저금리 안심전환 대출 500억원을 신규 조성하는 등 모두 1500억원의 소상공인 지원 특별 우대 용자 상품을 운영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이 1~2% 수준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남도는 지난 28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전남신용보증재단, NH농협·광주·KB국민·IBK기업·신한·우리·하나은행과 농협중앙회 등 8개 금융회사와 소상공인 특별이자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남도와 금융권이 협업해 고금리로 자금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낮춰 경영 안정화를 꾀하는 것으로, 전국 최초 선도적 소상공인 상

생금융 모델이다. 특히 중·저신용 소상공인 이자 지원을 고신용 소상공인에 비해 우대한다. 8개 금융회사는 1000억원의 금리 추가 인하 용자상품은 해당 용자에 대해 가산금리를 신용 구간별로 차등화해 고신용자 2.0%, 중·저신용자 1.7% 수준으로 제한한다.

이에 대해 전남신보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해 보증 비율을 2년간 최대 100%로 확대하고 보증수수료를 최초 1년간 0.6~0.8%p 인하하는 등 심사 조건을 우대해 보증을 지원한다.

용자는 업체당 2억원 한도로 하고, 전남도가 2년간 연 3.0~3.5%의 이자를 지원한다.

또 저금리 안심전환 대출 500억원을 신규 조성해 2023년 만기 도래하는 기존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용자를 대상으로 3.0% 이자 지원을 통해 이자

부담을 낮췄다.

그동안 중·저신용 소상공인은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고신용자보다 2배 이상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협약으로 고신용자보다 이자 감면율이 훨씬 높은 5~6% 수준의 감면 혜택을 받아 낮은 이자로 소상공인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5000만 원 대출 시 업체당 연간 250만~300만원 수준의 이자 절감 효과가 있어 금융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운영자금 조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록 지사는 "지난 2월 전남도는 중소기업 버팀목 특별자금 지원이란 전국 최초 선도적 금융협력 모델을 통해 상생금융을 실현했다"며 "이번 특별자금 지원은 상생금융을 소상공인에게까지 확대한 것으로, 앞으로도 금융 취약계층인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외모 흥터' 남·여 차별 없앤다

5·18 보상법 '장해등급' 보상기준 통일하게 개정

같은 흥터가 있는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더 큰 사회적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차별적 인식은 5·18민주화운동 보상 관련 법령에 반영돼 있는데, 정부가 뒤늦게라도 관련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지난 30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남성은 외모 흥터에 대해 여성보다 낮은 장해등급을 받는다.

'외모에 현저한 흥터가 남은 여자'는 7급이지만 '외모에 현저한 흥터가 남은 남자'는 12급으로 무려 5급이나 차이 난다. '외모에 흥터가 남은 여자'는 12급이고 '외모에 흥터가 남은 남자'는 14급이다.

이런 등급 차이는 장해보상액의 차이로 이어지므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행정안전부가 관련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행안부가 지난 28일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여자'와 '남자'라는 용어는 사라지고 대신 '사람'으로 통일됐다.

이에 따라 '외모에 현저한 흥터가 남은 사람'은 7급, '외모에 흥터가 남은 사람'은 12급이 된다. 여성의 등급은 유지되고 남성의 등급이 여성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되는 것이다.

어린이놀이시설법 시행령에도 보험 보상한도액을 '외모에 뚜렷한 흥터가 남은 여자'의 경우 3200만원, '외모에 뚜렷한 흥터가 남은 남자'의 경우 1000만원으로 규정하다가 2019년 5월 이같은 차별적 조항을 개정했다.

외모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외모 흥터에 대한 성차별이 공식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벌써 20년이 넘었다.

/연합뉴스



어르신들 디지털 교육 "어렵지 않아요" 광주 동구는 관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SNS, 키오스크 등 디지털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난 28일 자선1부녀 경로당 어르신들이 키오스크를 체험해보고 있다. <동구청제공>

전남도, MZ세대 겨냥 특색있는 명소 조성

광양·장흥·장성 '남도특화경관조성사업' 대상지 선정

전남도가 광양 인서리, 장성호, 장흥 안양면 등에 총사업비 30억원을 들여 관광 주도종인 엠지(MZ) 세대를 겨냥한 특색 있는 지역 명소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은 최근 수려한 자연환경과 특색 있는 숲은 문화자원을 발굴해 지역 명소로 조성하는 '2023년 남도특화경관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광양읍 인서리 일원은 주위에 전남도립미술관, 광양 역사문화관, 광양 예술창고 등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하다. 남도특화경관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시너지 효과가 더해져 문화도시로 지정된 광양지역에 경쟁력 있는 경관명소로 떠오를 전망이다.

장성호 수변길에는 주·야간 콘텐트 확충을 통해 새로운 즐길거리, 볼거리를 제공한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걷기 여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점에 경관자원을 관광자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

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장흥 안양면 일원은 해안선이 아름다운 남해안과 남파랑길을 배경으로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된 야간경관을 아름답게 연출해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모사업 평가에는 조경, 경관, 디자인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사업 성공 가능성 등을 검증했다.

전남도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경관위원 62명으로 구성된 '아름다운 경관 무료자문단'을 활용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지난해 강진 성전 한옥마을 등 3개소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심재명 전남도 문화자원과장은 "전남 관광객 1억 명 시대를 맞이해 남도 문화가 있는 사업 대상지를 지속 발굴해 관광 대세인 엠지(MZ)세대를 겨냥할 지역 명소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청렴도 1등급 목표 '청렴시민감사관' 본격 활동

50명 선발 위촉장 수여...부패방지·시민 불편 제보 제안

광주시가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청렴시민감사관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28일 시청 무등홀에서 제11기 청렴시민감사관 5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위촉된 청렴시민감사관은 교통, 문화, 환경, 도로·건설, 보건·복지 등 5대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췄으며, 2023년 5월 1일부터 2년간 활동한다.

시민감사관은 ▲부패방지·시민불편사항 등 제보·제안 ▲종합·특정감사 등 참관 ▲중앙 및 자치단체와 교류 및 역량강화를 위한 간담회 및 워크숍 참석 등을 담당한다.

광주시는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569개 공공기관 대상 청렴도 조사에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종합 청렴도 2등급을 달성하는 성과를 냈다.

광주시는 2020년만 해도 청렴도 평가에서 5등급에 머물렀으나 2021년 3등급, 2022년 2등급으로 끌어 올렸으며, 올해는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숨 쉴 때 공기가 필요한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듯, 공직자에게 청렴은 기본적인 기본"이라며 "시민감사관은 공직사회가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변화와 혁신의 동기를 부여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만큼 시민감사관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자원봉사 중 화재·폭발 사망 땀 보험금 2억 지급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 중 입을 수 있는 손해와 관련해 5월부터 사회재난 사망보험금과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 신설된다고 행정안전부가 30일 밝혔다.

사회재난 사망보험금은 자원봉사활동 중 화재, 폭발, 붕괴 등 대형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2억원을 지급한다.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자원봉사활동 중 자동

차 사고로 타인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5000만원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한다.

행안부는 2023년 자원봉사종합보험의 신규 계약을 체결하고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험은 전국 245개 자원봉사센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 시행기관에서 인정한 자원봉사활동 중 피해를 본 전국의 모든 자원봉사자에게 적용된다.

/연합뉴스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임대차 보증금·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법인회사 신용상태 파악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금당부동산

도시형 생활주택 등 (나주시)

- 대지 954㎡ (상업지 288.6평)
- 건물 2,254㎡ (681.84평) 지상 5층, 2022.4 준공
- 도시형 생활주택 42세대, 오피스텔 7실 근린시설 73.4㎡
- 매도 45억 (감정 50억, 대출 25억)
- 임대 보증금 2억8천 원세 2,400만원 포함
- 이전은 법인이전가능하고 사업부지와 교환도 가능

장흥군 안양면 수문해수욕장 2,447㎡ (740평)

- 경관 좋음. 별장형 빌라 등 가능. 숙박시설가능
- 매도 7억7천만원

함평군 해보면 해보리 산 약 3,223㎡ (4,000평선)

- 전원주택단지 좋음. 은행 2억 매도 12억

무안군 청계면 감정리 바닷가마을 대지 850.6㎡ (257평)

- 집 83㎡ 다세대분양 적합. 은행 5천 매도 2억7천

전북 김제시 상업지 2,573.7㎡ (778평)

- 은행 30억 매도. 은행 포함하고 5억

화순군 사평면 사수리 1,735㎡ (524평)

- 컨테이너 있고 공사가 3,740만원 매도 7,500만원

고흥군 도화면 사덕리 전 포함한 산 47,537㎡ (14,380평)

- 투자 등 적합 1억7천 (평당 11,822원)

전화 062-222-4994 / 010-2632-5659
FAX 062-222-4993

명품매장가맹점모집

(구찌, 버버리, 프라다, 발렌티노 등 약 1,000여개 명품 브랜드 취급)

모집지역

- ▲ 광주(남구, 서구, 광산구)
- ▲ 전북(전주)
- ▲ 전남(여수, 목포, 순천)

운영

- ▲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 ▲ 온, 오프라인 판매 시스템
- ▲ 네이버 및 인터넷 플랫폼 입점 판매중
- ▲ 점주로 입점 가능(기본 급여)
- ▲ 현 본점 매점 성업중
- ▲ 명품샵 투자자 대 모집(수익율 : 년 15% 확정) (담보제공 및 물품제공)

본점

-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용봉 전자 랜드 보짜 옆) 필 명품관

010-2288-0849 / 062-511-0849